



롯데백화점 "화이트데이, 달달한 꽃다발로 고백하세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롯데백화점광주점베베르매장에서 머랭꽃다발 1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머랭은 달걀 흰자에 설탕을 조금씩 넣어 가며 저어 거품을 낸 뒤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구운 것으로 입안에 넣은 순간 솜사탕을 먹는 것처럼 사르르 녹으며 달콤하다. /롯데백화점광주점

경기도 개성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탄력'

17개 시도 공무원 9명으로 구성 지자체-중앙정부-北 소통창구 역할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 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지자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 전염병 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시도의 '만

장일치 동의'를 얻은 도의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건의안에 담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 6급 4명) 등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지자체-중앙정부-북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광주광역시 청년해설사·공정여행가 육성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해설사와 '공정여행가 및 관광사회적기업'을 모집해 육성한다. 청년해설사 과정은 청년 눈높이에 맞춰 관광자원 안내와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26일부터 4월8일까지 모집한다. 공정여행가 및 관광사회적기업 과정

은 지역 사람과 문화를 엮어 이야기가 있는 여행을 만들고, 여행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15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관광 기본교육, 현장교육, 체험활동, 멘토와 함께하는 연구스터디, 파일럿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광주=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11일 (월) 음력: 2월 5일 수도권 날씨 3~1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4/10, 동두천 -1/11, 가평 -3/11, 파주 -3/11, 서울 3/11, 양평 -1/12, 인천 3/8, 수원 2/10, 용인 2/10, 평택 -1/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 복구, 中企 경쟁력 강화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

AI, AR·VR, 드론 등 3개 업종 중소기업 대상 네트워크 구축 기술력 향상·제조업 융합 기대

광주시 복구(구청장 문인)가 4차 산업 업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구는 "이달부터 AI(인공지능), AR·VR(증강·가상현실), 드론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를 본격 운영한다."라고 10일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산업 환경 변화로 융합과 협력이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4차 산업 업종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향상하고, 제조업과의 융합 과제수행을 통한 신 비즈니스 영역 창출을 위해 민선 7기 복구가 새롭게 내놓은 시책이다.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는 단순 교류회 방식을 탈피, 참여 기업 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기획해, 수행과제별 클러스터 내 소모임



문인 광주 복구구청장

을 구성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프로젝트 발굴·기획에서 사업화 지원 단계까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R&D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산·학·연 교수,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해 사업의 질을 높인다. 또한, '광주AR·VR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AR·VR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등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 및 계획 중인 4차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복구는 첨단국가산업단지의 집적화된 산·학·연 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복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4차 산업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많은 힘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탄력을 받은 첨단 3지구의 '인공지능(AI)기반 국립과학교육융합단지'와 올해 상반기 복구 대촌동 46번지 일원에 개장을 앞둔 '드론비행연습장' 등과 연계해 복구를 4차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업종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광주테크노파크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경제종합지원센터(062-410-6555), 광주테크노파크 3D 융합상용화지원센터(062-602-0204)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보해양조 "북분자주 마신 해외 바이어 '엄지척'"

日 식품-음료박람회 푸덱스 참가 나흘간 2000여 명 홍보부스 방문 부드러운 맛·향에 관계자들 감탄

"한국은 김치라는 세계 최고의 발효숙성 기술을 가진 나라다. 이러한 기술로 만든 보해북분자주는 맛과 향이 뛰어나 한국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만든 보해북분자주가 '2019일본 식품-음료박람회'(FOODEX 이하 푸덱스)에서 전 세계 식품 및 음료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20개 국가에서 판매중인 보해북분자주는 2019 일본 푸덱스를 통해 더 많은 나라로 수출될 전망이다. 보해양조는 일본 도쿄에서 최근 열린 2019 푸덱스에 참가해 보해북분자주를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선보였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푸덱스는 전 세계 80여개국 8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식품-음료 박람회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주류 업체들을 포함해서 음료와 커피,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수많은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보여줬다. 보해는 한국을 대표하는 술인 북분자주를 알리기 위해 한국관이 아닌 국제관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전 세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4일동안 독일과 필리핀, 인도 등 주류업체 관계자들 2000여명이 보해 홍보부스를 방문했다. 남성 스태미너에 좋다는 사실을 듣고 호기심에 맛본 해외 바이어들은 보해북분자주의 부드러운 맛과 향에 놀라워했다. 독일의 식품업체 CEO는 한국의 뛰어난 발효숙성 기술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기술로 만든 보해북분자주는 세계적인 경



일본 푸덱스 보해양조 홍보부스를 찾은 그리스 바이어가 북분자주를 맛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다.

쟁력을 갖춘 제품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럽 지사에서 보해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며 4월 중 한국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해북분자주 이외에도 매추순 등 다양한 제품 샘플에 관심을 보였다. 보해양조 마케팅본부 이승은 파트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술인 보해북분자주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본 푸덱스에 참가하게 됐다"며 "푸덱스에서 만난 해외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경기도, 공사비 부풀린 아파트단지 47곳 적발

고발2건·수사의뢰 3건 등 282건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

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 군에 통보했다. /경기=김승열 기자